

응모자격

- 매월 1건 이상의 교육현장 소식을 취재·작성할 수 있는 분 (만 18세 이상)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분

※ 기존 명예기자는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평가에 반영함

모집인원

- ○○○명

모집기간

- 2021.1.11(월) ~ 2.19(금)

원서접수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응모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 (eduzine21@gmail.com)
- 제목에 '명예기자 지원 ○○○' 기재 필수

※ 명예기자지원서, 취재기획서 각 1부(단, 기존 명예기자는 경력지원서 제출)

결과발표

- 2021년 2월 말(웹진 공고/ 합격자 개별 연락)

문의

<편집실> 02-2271-0992

교육부

교육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3 2021 FEBRUARY

04 특별기획 Ⅰ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11 꿈이 영그는 현장
안동 신성초등학교 자유학구제 순풍 달고, 작은 학교 비상하다

48 교육포커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습 공백 채운다



교육부



Contents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63 **2021 FEBRUARY**

24

특별기획Ⅱ

원격 진로교육, 미래 설계하는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 진로교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규 과목 수업 운영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교육은 뒷전으로 밀렸고, 진로체험 활동 역시 취소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미래형 진로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과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설계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운영사례
이젠 진로 탐색도 랜선타고!

48

교육포커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습 공백 채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와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이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스스로 학습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단지 교육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본다.

①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컨설팅
② 학습 공백을 채우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02

2021 vol.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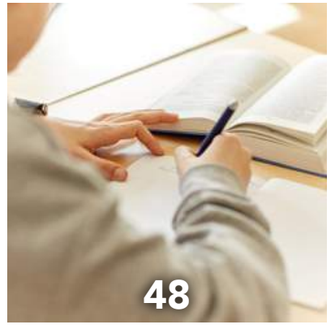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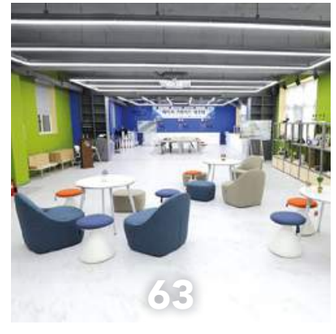












Cover story



지난 1월 29일 열린
춘천고등학교(교장 김웅기)
졸업식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마스크 벗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작별해야 하는 씁쓸한
풍경이 연출됐다. 비록 아쉽고
조금은 삭막한 졸업식이 됐지만,
모든 졸업생의 앞날이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특별기획 Ⅰ

04 2021 교육부 업무보고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별기획 Ⅱ

24 원격 진로교육, 미래 설계하는 아이들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설계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운영사례
이젠 진로 탐색도 랜선타고!

11 꿈이 영그는 현장
안동 신성초등학교
자유학구제 순풍 달고, 작은 학교 비상하다

16 교실혁명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 도전하기
논리를 키우는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20 삶과 교육
부천대명초등학교 오영기 교사
기초학력 흔들리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

38 정책을 말하다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청년정책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43 교육자치시대
경상북도교육청_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46 이달의 교육뉴스
2021년 매치업 사업,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신규 선정 外

48 교육포커스①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컨설팅

51 교육포커스②
학습 공백을 채우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54 통계로 읽는 교육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교육 시설이 존재할까?

56 뚝딱뚝딱! 자료실
교실에서 쉽게 적용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58 교사상담실
예비 고1,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60 이야기 인문학
전염병은 인류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나

62 명예기자 리포트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外

발행일 2021년 2월 10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교육부 업무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교육부는 1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을 돌아보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 교육부 정책 추진방향

비전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핵심 원칙

선제적 대응 | 지속성 | 포용성 | 자율성 | 안전과 건강

코로나19 대응

❶ 학교의 일상 회복

- 방역안전망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
- 결손 보완을 위한 학습·정서 안전망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망
- 교육복지 및 교육시설 안전망

❷ 원격수업 질 제고

- 교사-학생 소통 강화
-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규제 혁신
- 원격수업의 질 관리 체제 마련
- 안정적 수업을 위한 인프라 완비

미래교육 선도

❸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미래학교 본격 추진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 2022 개정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추진
- 인공지능·환경생태교육
- 교원 양성체제 개편

공유·협력의 고등교육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 지역 혁신·발전 견인
- 학술진흥생태계 구축
- 대학 체질 개선·사학 혁신
- 교육 국제화 강화

전 생애 평생직업교육
- 온라인 평생학습시스템
- K-MOOC 고도화
- 마이스터대 도입
- 고졸 취업 활성화

❹ 따뜻한 희망사회 구현

• 안전·공정·포용사회 구현 • 미래인재 양성 기틀 마련 • 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추진 전략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 연계·협력을 통한 범부처 역량 집중 | 선제적 법·제도 정비로 교육혁신 가속 | 빅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지능화

지난 4년('17~'20), 이렇게 일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3대 비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지원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체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철저한 학교 방역과 기기 및 기반(인프라) 지원을 토대로 등교·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했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및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통해 초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학교 내 전파를 차단해왔다. 지난 12월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하며 시험장을 통한 확진 사례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렀다.

유아~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교육급여 인상 등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확대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4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을 확충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전면도입('20.3) 및 「유치원 3법」 개정('20.1)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또한, 학교 안팎의 촘촘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지원했으며, 3년 연속 특수교사를 1,000명 이상 증원하고 특수학교 9개교와 특수학급 1,336학급도 확충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23학년도)하고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하는 학교 혁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0.) 마이스터고 도입, ('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계고 부분 도입, ('25.) 전면 시행)하고, 존중·자율·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미래 혁신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20. 3개 플랫폼)하고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도 도모하였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모집단위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첨단분야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1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방역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협력수업,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과 함께, 두드림학교('21. 5,000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21.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며, 1:1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시스템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 방문('21. 145명)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21. 약 10만 명)한다.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자체-학교 간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21.9)하고, 초등돌봄교실(700실) 및 마을돌봄기관(495개소)을 확충하는 등 45만 9천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20. 24만 원 → '21. 26만 원) 되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 저학년 학습 지원

- 교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3월 신설

학생 정서안정 지원

-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17개 지정·운영
- 대학생 심리·정서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

-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19) 22만 원, ('20) 24만 원 → ('21) 26만 원
-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고등학생 124만 명 교육비 160만 원 절감
- 학자금 대출금리: ('20) 1.85% → ('21) 1.7%
- 평생교육 바우처: 1만 5천 명 지원(7천 명↑)

2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원격수업 또는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학생-교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온라인 강좌(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21.2)한다.

원격수업에 맞춰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수립('20.2)하여 오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비율 상한(20%) 규제를 폐지하고 '21년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등 운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교·사대 10곳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28개소로 확대하고,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구축('21.3~)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원이 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상반기 내 초·중·고 25만 2천 개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제공('21.3,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기가(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학생 간 소통 확대

- 실시간 채팅, 조·종례 등 소통 활성화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화상수업 서비스 전면 개통(2월)

원격수업 규제 혁신

- 초·중·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2월)
- 대학: 원격수업비율 20% 상한 폐지 (1학기)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

-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0) 10개 → ('21) 28개
- 대학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구축: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공개

원격교육 인프라

- 초·중등교실 25.2만 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 교원용 수업자료 제작 플랫폼 시범 운영(3월~)

3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1) 미래학교 전환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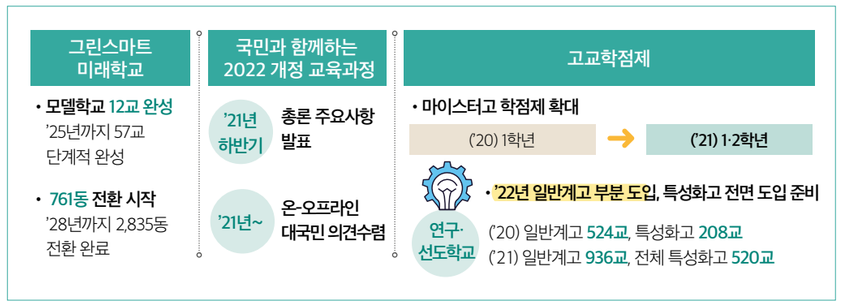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기로 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지역과 공유하는 복합화시설 등을 갖추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전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4년 완공 예정)하고, 2028년까지 2,835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21.9)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대상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마련('21.2.)하고 연구·선도학교를 확대·운영('21. 일반계고 936교, 특성화고 전체 520교)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 역량이 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21.7. 발전방안 수립)하고, 새로운 교원수급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2)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신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기존의 경쟁체제가 아닌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인재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3개 지역혁신 플랫폼(경남, 광주·전남, 충북)에 더하여 올해 1개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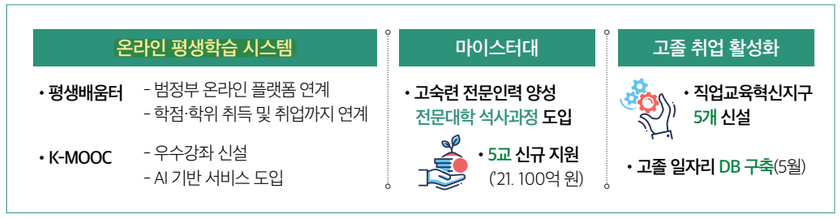


(3)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사회 수요에 발맞추어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21. 5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 수요에 대응한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21. 250교)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졸 취업도 활성화한다.



4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 시군구에 배치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학대 피해아동 정보가 공유되며, 즉각분리 제도도 도입된다. 올 상반기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전방위적으로 학대방지를 위한 체제 구축에 나선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그 밖에도 신종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대책과 이용시설, 보건·위생, 정신·신체건강, 교통, 식생활 등 어린이안전 관련 범부처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 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관리(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안동 신성초등학교

자유학구제 순풍 달고, 작은 학교 비상하다

안동의 작은 학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자유학구제(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하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한 방향 학구제)로 지정된 신성초에 23명이 전학했으며, 올해에는 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작은 학교의 매력과 인성교육을 중시한 교육과정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폐교 위기의 학교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글 이순이 편집장



1 _ 학교는 겨울방학을 맞이했지만,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해 돌봄교실에서 생활한다. 1학년 아이들이 각자 완성한 블록 작품을 들고 포즈를 잡고 있다.



2

> 66
> 자유학구제는 지역 내 과밀학교(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작은 학교를 살리는 윈윈전략으로 손꼽힌다.
> 99

안동의 작은 학교로 손꼽히는 신성초등학교(교장 김현광)에 최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초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구담교를 거쳐 정리된 넓은 농경지를 지나 작은 동네와 들과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1949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2,9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지만, 몇 해 전에는 학생 수가 20여 명으로 감소하면서 '폐교' 수순을 밟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수는 601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10년 전(782만 명)과 비교하여 23%가량 줄어든 수치이며, 실제로 그동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3,834교가 문을 닫았다. 경북은 전남(828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729교가 폐교됐다. 신성초가 위치한 안동에서도 17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 작은 학교가 처한 현실 앞에서 위기감은 더욱 컸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다시 찾은 활기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국의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은 학교였던 신성초는 과밀학교(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원활하게 등교하여 대면교육이 이뤄졌다.

여기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 조성된 신도청 인근에서 전·입학 학생이 크게 늘면서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유학구제란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하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전입이 가능한 한 방향 학구제이다. 작은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경북은 지난해 초등학교 29개교에서 자유학구제를 실시하여 9개 학교에서 한 학급씩 증설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 내 과밀학교(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작은 학교를 살리는 윈윈전략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자유학구제로 지정된 신성초에 23명이 전입했으며, 올해에는 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다. 작은 학교의 매력과 인성교육을 중시한 교육과정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포기하고 10km 떨어진 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2 _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생한 '꿀잼 상상 누리터'
3 _ 단층으로 이뤄진 작은 학교지만, '행복한 학교'를 향한 큰 뜻을 품고 있다.
4 _ 고학년을 위한 겨울방학 영어 특별캠프



3



4

농촌 작은 학교의 숨은 저력

김현광 교장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구를 개방할 것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신성초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동안 머릿속으로 구상해 오던 작은 학교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작은 학교를 믿고 찾아온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 김 교장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행정력과 교육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신성초는 2019년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미래형 선비학교,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에도 각종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프트웨어(SW) 선도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다문화정책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농어촌교육실습학교,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농산어촌 영어캠프 운영학교 선정 등 각 부문에서 교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교육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원격수업 기간 중 3~6학년은 1인 1태블릿 PC를 제공한 실시간 수업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1~2학년은 담임



5



6

5 _ 1학년 아이들이 학교 뒷산에 올라 마음껏 뛰놀고 있다.

6 _ 농촌 학교의 장점을 살려 만든 '자연나눔텃밭'에 가을 꽃을 심고 있다.

교사들이 주 2회 학습꾸러미를 직접 가정에 배부하며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살폈다. 또한, 등교수업이 실시된 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전교생이 모두 등교했으며, 방과후학교 정상운영과 방학 중 2주간 영어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는 어린이들의 재능과 소질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춘 10여 개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TBC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에 1, 2학년 어린이들이 출연하여 끼를 마음껏 발휘했으며, 시 울림 있는 학교를 통해 시를 짓고 읊는 활동은 'TBC 아이들의 시작'이란 프로그램에, 방과 후 교육활동에 배운 예체능 활동은 '안동 MBC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 환경을 이용한 '자연나눔텃밭'을 조성해 학년별로 가꾸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교내에서 직접 병아리를 부화시켜 학생들에게 분양하는 등 농촌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야외놀이터를 조성했으며, 실내에는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터 겸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아이들의 좌우명을 액자에 담아 가까이에 두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만들고 늘 책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서가도 마련했다.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운영될 방송반을 위한 부스도 갖추는 등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도 마쳤다. 추운 겨울, 학교 운동장 한편에는 2월 완공을 목표로 다목적 강당 준공이 한창이다. 가장 열악한 공간이었던 화장실도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학교 뒷공간에 사육장과 관찰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주도 체험학습(울릉도·독도), 계절스포츠,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학 기행, 요양원 봉사활동, 학부모회 중심 학교 참여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자존감과 성취감 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Interview with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뿐"



김현광 교장

Q1 학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것 같다. 비결이 무엇인가?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교장실에 모여 회의를 하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편이다. 첫 건의사항은 운동장의 축구 골대를 사달라는 것이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너무 낡은 골대를 바로 교체해주었다. 이후 1학년은 나와 뒷동산에 가서 놀고 싶다고 했고 기회를 봐 아이들을 인솔해서 신나게 놀다 왔다. 4학년은 동요를 듣고 싶다고 건의했다. 고장 난 스피커를 고쳐 사용했으나 금방 고장이 나서 새로 샀다. 제일 일찍 등교해서 아이들을 위해 동요를 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실내 휴게공간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5학년 학생들의 아늑한 휴게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에서 출발했다. 낡은 신발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졸업을 앞둔 6학년은 평생 기억할 추억을 원했고 자전거를 타고 경주를 다녀왔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바로 교육활동에 반영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높아졌고 학교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Q2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이 잘 이뤄지는 편이고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 민원을 교장실에서 처리하며 서로 오해가 없도록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선생님도 상처를 받는다. 선생님이 즐겁게 일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많이 나눠주었으면 한다.

Q3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시에서 칠곡의 작은 학교까지 24km를 매일 통학시키던 학부모들이 있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일 원거리를 통학시켰다. 당시 아이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 작은 학교 학구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규모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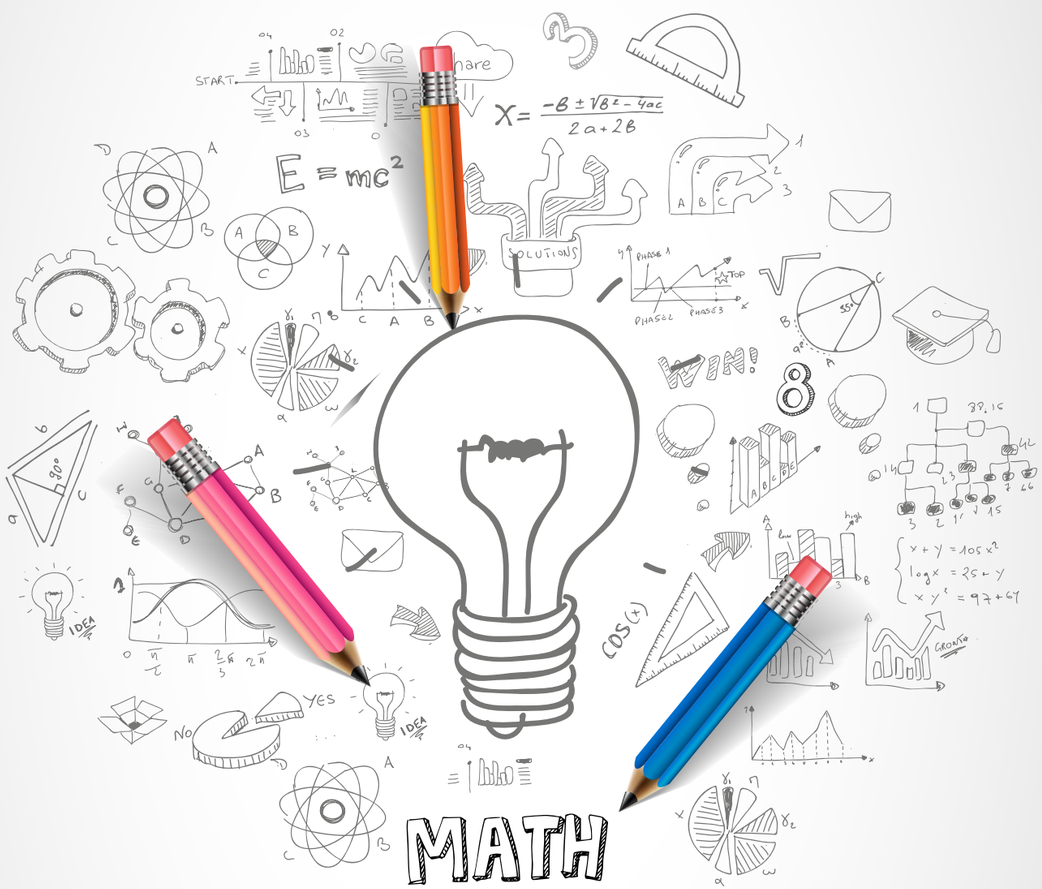
Q4 아이들이 어떤 인재로 자랐으면 하는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따뜻한 인재로 자랐으면 한다. 아이들과 3가지를 약속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사를 잘하며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다. 매달 예의 바른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나가 읽고 싶은 책을 선물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다.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를 통해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학기에는 특색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 도전하기

논리를 키우는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글 박정숙 양재고등학교 수석교사



자신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을 탐구한 경우와 숙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르다.

과정중심평가가 평가의 메인으로 떠오르면서 매시간 활동지를 풀게 하고 활동지를 모아 학기 말에 검사하는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활동이 담긴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과정중심평가라고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수행평가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을 가르치던 시기에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2~3시간에 걸쳐서 했던 활동 중 하나는 장난감 자동차와 경사로를 이용해 변수를 조정한 실험 계획을 짜고, 실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구하고,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해석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했던 경험이 현재는 통계 보고서 쓰기, 수학 용어 발표 영상 만들기, 수학 개념을 활용한 카드뉴스 만들기, 이솝우화 다시 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활동 중 어느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보통 보고서 쓰기라고 하면 분량이 5~6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2~3페이지 분량을 목표로 한다. 분량이 많으면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식도 간단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단 각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자료를 PPT로 만들면 교사 스스로도 과제에 대해 정리하기가 좋다.

서론

탐구 주제에 대한 논의

- 이 주제를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주제의 연구 가치는 무엇인가?
- 탐구 주제가 배운 교육과정 또는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본론

탐구 주제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논의

-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진술하였는가?
-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가능한가?
- 과제에 대한 이해력과 노력

결론

탐구 주제 해결을 통해 배운 점에 대한 논의

- 탐구 주제의 내용이 확장 가능한가?
- 주제 탐구를 통해 배운 점은?
- 주제 탐구와 내 진로의 연계성이 있는가?

주제 선정 후 피드백으로 방향 잡기

주제 탐구 보고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제를 찾는 부분이다. 따라서 과제를 설명하고 주제를 찾는 시간을 공들여 제시해야 하고, 학생들의 과제는 맨 마지막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시간 정리해서 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제 찾기'를 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마치기 전에 '내가 찾은 주제', '주제 선정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시간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 협업도구인 패들렛(Padlet)을 사용해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댓글로 피드백하는 방식을 취했다. 효과적인 피드백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제 탐구의 경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 변형해서 진행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를 찾았으면 이 주제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책을 읽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학 도구를 이용해 실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거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해서 해결하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01 일반화 가능한지 탐구한다.

02 조건 변형이 가능한지 탐구한다.

03 결론에 도달하는 다양한 해법이 있는지 탐구한다.

04 다른 영역과 연결 가능한지 탐구한다.

이 과제를 2020년 양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적분 수업 시간에 제시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보고서는 '미분으로 해석한 뉴턴의 방법: 점화식의 극한값으로 함수의 영점 구하기'였다. 이 학생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경시대회에서 '$(2+\sqrt{3})^5$의 값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잘 모르겠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뉴턴의 방법을 활용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본론은 온라인 수학 학습도구인 지오지브라를 이용해 그래프를 그려서 근삿값을 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 결론은 점화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론이 다소 뻔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제를 잡은 시작점이 좋았고 논리적인 서술 방식이 인상 깊었다.

수준에 따라 탐구 주제·학습 내용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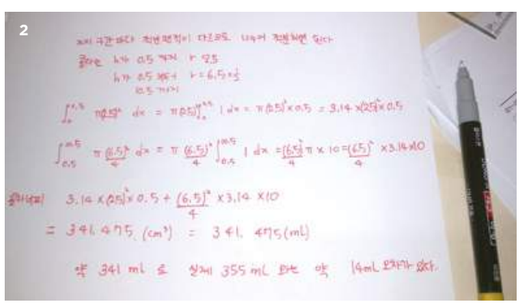
그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기존에 다른 학생들이 했던 탐구 주제를 적어주고, 그중에서 탐구 주제를 고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처음 시도할 때는 막연하지만, 두 번째 진행하게 되면 전에 학생들이 시도했던 작품을 분석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좀 더 세련된 작품을 볼 수 있다.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도해 보는 노력과 우리 학교에 맞는 과제를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 다른 학교에서 성공한 과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다 해도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도 해마다 조금씩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방법 면에서도, 학생들을 대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처한 문화적인 면에서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작년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의 경우엔 이 과제에 얼마나 진심을 담아 참여했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다. 자신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을 탐구한 경우와 숙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르고, 중간에 교사의 피드백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방법이 많이 변했다고 말한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보고서 쓰는 과제를 잘 해내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학습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수학과의 경우 진도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고, 한 학년을 여러 명의 교사가 가르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 장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통 과목보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활용하기에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과제로 변형하고, 각 과제마다 활동 팁을 제공하고 싶다.



1 _ 패들렛을 사용해 반별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댓글로 피드백이 이뤄졌다.



2 _ 실제 학생이 제출한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 예시

기초학력 흔들리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

오영기

부천
대명초등학교
교사



1 _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해온 오영기 교사는 "그물처럼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주로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해 온 부천대명초교 오영기 교사. 이곳 부천지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지역연계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등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설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글 김혜진 객원기자

"농촌 소규모 학교였던 첫 부임지에서부터 저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다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에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늘 심어주고 싶었고요. 초등교사로서 이 생각은 지금도 늘 변함이 없습니다."

부천대명초등학교(교장 김재환) 오영기 교사는 교직에 들어선 지 올해로 꼭 20년째다. 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 오 교사는 경기도 북부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주로 근무해 왔다. 네 번째 부임지인 이곳 부천대명초교는 이전 학교보다는 비교적 도심권에 인접한 학교. 하지만 같은 부천시에서도 사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등 기초학력 측면에서 부조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오 교사가 지난 15년 동안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매달려온 공교육의 책무성, 기초학력 향상 등 그물처럼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이곳에서도 강조한 이유였다.

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윈윈'

"기초학력의 향상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천대명초교에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방과 후 기초탄탄교실, 학력채움교실 등 학교 차원에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웃 상급학교인 원종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행하는 '토요 방과 후 후배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은 해마다 양교의 참가 학생 모두에게 만족도가 특히 높단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채우지 못했던 학습의 일부를 친구로부터, 혹은 지역연계 마을교육공동체로부터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대명초 4~6학년 희망 학생 60명, 그리고 원종고 60명 학생의 매칭으로 각각 진행된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말에 몇 번 모인다고 과연 달라질까?'라는,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매년 학업 성취도를 직접 정량화하여 검증해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프로그램 참가 이후 학습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전해 듣곤 합니다. 학습 부진을 겪던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마을의 형과 함께 공부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하게 되는 좋은 본보기인 셈입니다."

또 멘토였던 원종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 활동이 계기가 되어 원하는 교대나 사대에 진학하는 사례들도 늘었단다. 이처럼 부천대명초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후배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은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원윈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 교사는 소개했다.

즐기면서 배우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소외지역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의 역사는 그의 첫 부임지였던 20년 전의 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학년이 6학급이었던 소규모 학교인 고양시 소재 신원초교. 당시 이곳에서 젊고 패기 넘치는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온라인신문 만들기라는 좀 더 색다른 방식을 차용한 바 있다.

"농촌 지역의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이지만, 학습 의지가 부족했던 아이들도 존재했었죠. 이 아이들에게 '우리도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방식이 다 함께, 재밌게 만들어가는 온라인신문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뉴스거리를 찾아 취재하고, 편집하고, 평가하는, 신문을 만드는 활동이었죠. 아이들은 이 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 공부는 물론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태도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 아이들이 참가했던 '제1회 전국 즐거운 신문 만들기 e-NIE' 공모전에서 신원초는 전국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었다. 오 교사는 "농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무엇보다 이전까지는 학교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커다란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10년 전, 역시 소규모 학교였던 파주 탄현초교에서도 오 교사의 학력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탄현초교는 휴전선이 인접한 벽지학교이다 보니 교육환경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6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파주지역 하위 15%에 머물렀을 정도로 학교의 분위기는 침체돼 있었다.

"당시 6학년 담임이었는데, 학급의 많은 학생이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주기 위해 곧바로 학부모와의 상담에 들어갔죠. 그리고 교과학습 부진 탈출 캠프를 당장 3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3



4

2 _ 원격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오 교사

3 _ 부천대명초-원종고 선후배 간의 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개강식

4 _ 2학년 학생들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6학년임에도 우리말 읽기는 물론 곱셈, 나눗셈 등이 서툰 아이들을 구제에 나서기로 한 것. 방과 후 밤 9시까지 이어진 학습부진 탈출 캠프 운영 결과, 다음 성취도 평가에서는 파주지역 하위 15%에서 상위 10% 선까지 끌어올리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오 교사는 당시 이 학교에서 영상애니메이션부도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나리오도 쓰고, 스토리보드도 직접 만드는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의 통합교과수업을 직접 설계, 운용한 바 있다. 당시 탄현초교의 영상애니메이션부 활동은 파주지역 내에 입소문이 자자했을 만큼 대외적으로 많은 상도 받았다고 오 교사는 귀띔했다.

"다층적인 학습안전망 구축 필요하죠"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국어에서 찾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학력 향상 교육을 위해 온라인신문을 만들고, 영상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등 국어 교과를 포함한 통합교육을 중시해 온 이유이기도 해요. 이처럼 재미있는 활동과 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 첫 번째 부임 학교에서 한 학생이 일기장에 썼다던, '우리 선생님, 잘 만났다. 성적 한 번 올려보자'라는 이 한 문장이 아직도 또렷하게 인상에 남아 있다는 오영기 교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이 명제를 늘 경계하고 있단다.

"기초학습 부진 현상은 일정 정도 구제가 돼도 시기가 바뀌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학습 부진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다층적인 차원의 학습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2030 경기미래교육의 모토이기도 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지역연계 마을 공동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생평가도 개별적인 고유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교사는 그러면서 "다음 부임 학교에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수호되는, 단계별로 개별화하는 이 평가방식을 꼭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이고 싶다."라고도 했다.



특별기획Ⅱ

원격 진로교육, 미래 설계하는 아이들

코로나19로 인해 진로교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규 과목 수업 운영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교육은 뒷전으로 밀렸고, 진로체험 활동 역시 취소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미래형 진로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과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25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설계

28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운영사례

32 이젠 진로 탐색도 랜선타고!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설계

글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체험학습센터장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는 원격,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공공기관, 대기업, IT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원격, 비대면 방식이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났을 때

이 추세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오히려 방아쇠 효과(Trigger Effect)[1]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AI(인공지능)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지만 이제는 노동력의 증강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해서 일을 잘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에서의 변화가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Hybrid Work)다. 하이브리드 모형은 재택+사무실, 온라인+오프라인, 가상+현장 작업 등이 혼합된 모형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에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원격 및 재택근무의 이점과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할 때의 긍정적인 커뮤니티 효과 간의 균형을 맞춰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하이브리드 워크의 목표이다.

하이브리드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친 시대적 기술발전의 의미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의 기준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이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교육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사 용어인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매체나 학습방식에서의 결합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면, 하이브리드 모형은 학습자이자 교육의 생산자로서의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하나로 합친 것에 대한 표현을 의미하며 새로운 교육모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2]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형식적인 학습을 뜻하는 포멀 러닝(Formal Learning)과 직업생활과 삶 속에서의 인포멀 러닝(Informal Learning)을 적절히 균형있게 하이브리드하는 것이 곧 우리 미래교육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 수업 중심 → 온라인 진로체험으로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형은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1 생명 평형이 유지되는 생태계에 어떤 이유로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생태계 전체가 크게 변화하는 현상

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컴퓨팅, AR·VR, 핀테크, 무인이동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O2O 등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진로교육법 제2조), 코로나19는 학교나 체험처에서 오프라인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진로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 건수는 '20.12.10. 기준 16,322건('19년 동기간 9,858건 대비 1.7배)가 늘어났으며, 그간 오프라인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던 진로체험 분야에서도 12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체험처에서 4,039개 비대면,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20.12.11.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진로체험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고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발달된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쌍방향 소통은 물론 온라인 협업활동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한계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과 학교의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 의해 정보제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체험프로그램과는 달리 체험처 강사, 보조강사, 학교교사의 인솔 및 수업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 및 디지털 도구 활용능력과 학습준비도, 학부모의 지원여부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디지털 도구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진로체험이 기존의 오프라인 현장방문 체험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진로교육

온라인 학습의 효과성과 만족도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이 2020년 5월에 발표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3], 현행 온라인 학습은 학습효과 저조(25.8%)로 불만족한다는(56.3%) 응답이 높고 효과적인 원격학습을 위해서는 에듀테크(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게임 등) 도입(22.8%)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에듀테크, 특히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실시간·소통·체감형 학습 콘텐츠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 디지털 혁신에 따른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진로교육 틀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진로수업을 구성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양질의 온라인학습 콘텐츠 개발 및 오프라인 수업·진로체험 활동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진로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단, 이때의 하이브리드 진로교육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진로교육 방법의 물리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학생은 더 이상 '수업을 받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수업을 만들어가는',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의 생산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듀테크와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적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비실시간 토의와 발표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진로 및 직업탐색 과정에서의 실재적 문제(Authentic Problem)를 스스로 찾아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 과제의 해결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면서 더욱 현격해진 디지털 정보격차와 양질의 진로체험처 부족으로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진로교육은 미래의 직업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뉴노멀 시대에 일반화될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숙련도'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워크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 숙련도이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혁신기술 도입은 직업 기초 능력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 디지털 큐레이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산을 선택, 보존, 유지,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수많은 디지털 정보와 자동화,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재택+사무실, 온라인+오프라인, 가상+현장 작업 등 혼합된 하이브리드 작업모형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클라우드 상의 다양한 디지털 협업툴을 사용하며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협업역량 또한 중요하다.

김태원 구글코리아 전무는 뉴노멀시대를 위한 인재와 교육에 관한 강연에서 미래의 인재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이 새로운 도구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면서 창의력과 협업 능력, 데이터와 기술 구사력, 마지막으로 사회와 사람을 위한 인문학적 통찰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혁신으로 시작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로교육·진로체험의 요구 증대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직업세계의 창조적 파괴는 진로교육에 있어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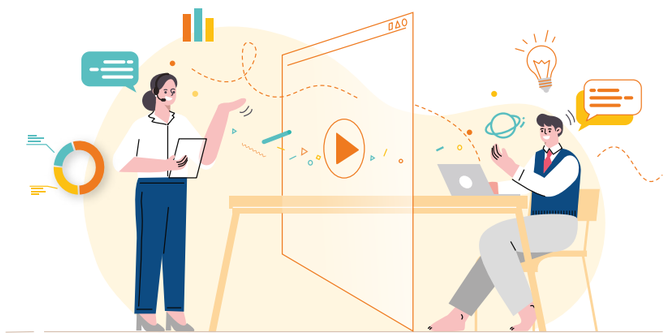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학습자이자 생산자로서 문제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과 실제 현실을 오가며 체험하고,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진로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직업진로교육을 위한 하이브리드 진로교육 플랫폼을 잘 마련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자원들을 큐레이션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배영임, 신혜리(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No.416, 경기연구원.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운영사례

교과 연계·블렌디드 러닝으로 이뤄진 미래형 진로교육

글 양지선 기자



코로나19가 초래한 원격수업은 그동안 대면 수업에서 제한된 활동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진로교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규 과목 수업 운영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교육은 뒷전으로 밀렸고, 진로체험 활동 역시 취소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미래형 진로교육을 펼친 현장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진로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갔다.

인천석남서초등학교(교장 조재영)의 김종완 교사는 지난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학습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펼쳤다. 초등 저학년 특성상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김 교사는 학생들이 즐겨보는 브이로그(V-log) 형태로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2학년 통합교과에는 '우리 동네 탐험하기' 활동이 있어요. 동네의 다양한 상점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직접 동네를 돌며 촬영해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제공했어요. 조금이나마 실감 나는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유행하는 '부캐릭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직접 직업인으로 분장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다.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쪽지로 받고, 쪽지에 대한 답변은 비대면 수업에서 직업인과의 가상 인터뷰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진로 관련 퀴즈와 놀이 활동을 구성해 진행했다.

브이로그·부캐릭터 활용한 흥미로운 영상 진로교육

코로나19가 초래한 원격수업은 그동안 대면 수업에서 제한된 활동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 교사는 '패들렛(Padlet·자료 공유와 온라인 토론에 유용한 웹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 반 내에서만 공유되던 활동 결과물이나 학생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전체 학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패들렛 상에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한 줄의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뒷이야기를 상상해 글을 쓰도록 독려한 '한 줄 이어쓰기'는 지난해 꾸준히 진행해온 활동이다. 김 교사는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며 스스로를 표현하게 하거나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글쓰기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글을 쓴 내용은 김 교사가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고 목소리를 넣어 영상으로 제작했다.

'주니어 커리어넷(www.career.go.kr/jr)'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블렌디드 수업을 구성했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료를 얻고, 대면 수업에서 각자 찾은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구성해 원격수업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학기 초에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기기를 다루기 힘들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교사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제공하고, 직접 글을 쓰는 방법보다 종이에 쓴 글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게 하는 것으로 접근 난이도를 낮췄다.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대면 수업에서 도움을 주며 학생 간 수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김종완 교사는 앞으로 진로교육이 교과 수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로교육을 교과 수업과 분절적으로 생각해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12 _ 김종완 인천석남서초 교사는 학생들이 즐겨보는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제작해 진로교육을 펼쳤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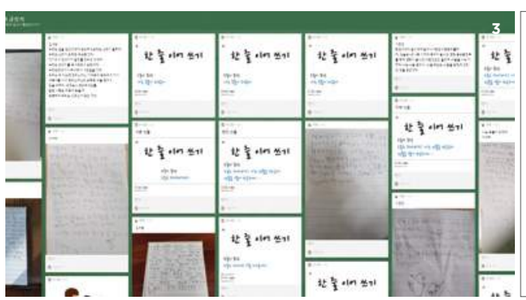
인식에서 벗어나,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계획하면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진로교육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자연스럽게 잇는 블렌디드 수업 형식으로 구성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진로교육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교육"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연습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적절한 진로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일중학교(교장 박종곤) 박정희 진로상담부장 교사는 진로교육을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도왔다.

박 교사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해 진로교육을 구성했다. 먼저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검사는 학생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 차분하게 검사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개별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며 교사와 1:1 채팅을 통해 진로상담이 이뤄지게 했다. 그는 "나이스(NEIS)를 통해 진로심리검사 결과가 제공돼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검사 결과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학생과 함께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원격수업에서는 다양한 직업인 인터뷰 영상 중 관심 있는 영상을 각자 본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로 모둠을 구성해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학습방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등교 수업에서 주로 교사가 하나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현장 체험활동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진로체험처를 가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온라인을 통해 각자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할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34 _ 김종완 교사는 패들렛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글을 쓰도록 독려한 '한 줄 이어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56 광일중학교는 대면 수업 시간에 교과융합(국어+진로) 직업인 인터뷰(사진5)와 소규모 진로체험 활동(사진6)을 진행했다.

교과 연계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진로교육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도록 교과와 연계한 진로수업을 구상했다. 그 예로, 국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학습 영역의 '진로 활동'을 연계해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직업인을 인터뷰해보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원격수업 시간에 관심 분야가 같은 3~7명의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직업인을 정해 질문지를 작성하면, 이후 등교 수업에서 모둠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인을 실제로 만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직업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소모둠으로 이뤄져 소외되는 친구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소감도 있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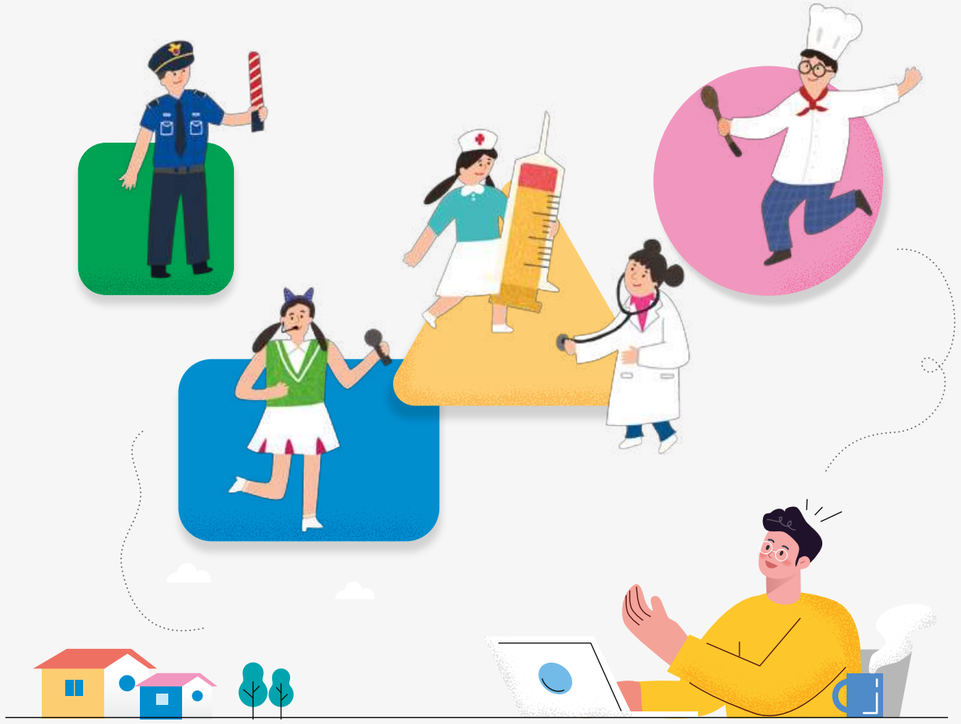
다만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어려움으로 꼽혔다. 박 교사는 그 대안으로 관심 분야별 모둠을 구성하고 글, 그림, 영상 등 각자 관심 있는 활동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별 상담으로 지원했다. 대면 상담은 어려웠지만, 전교생과 1:1로 소통할 수 있는 교내 SNS가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했다.

박 교사는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관심사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시기에 이런 활동이 충분히 이뤄져야 고등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과목 선택을 하며 창의적 진로를 디자인하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젠 진로 탐색도 랜선타고!

글 이예슬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도 막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으며, 어느덧 우리의 일상에서 화상 회의, 재택근무 등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학교'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진로교육 또한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온라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진로교육 활동'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와 직업」 수업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원격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에서 지원한 온라인 진로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진로교육 지원

진로심리검사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등 진로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한 온라인 '진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대상	심리검사명		예상시간	총 문항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진로흥미탐색	저학년용(3,4학년)	15분	18개
		고학년용(5,6학년)	20분	48개
중·고생용	직업적성검사		20분(중) /30분(고)	66개(중) /88개(고)
	직업흥미검사(K)		15분	96개
	직업흥미검사(H)		20분	141개(중) /130개(고)
	직업가치관검사		10분	28개
	진로성숙도검사		20분	64개

* 주니어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jr) : 초등학생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 전용 진로교육 플랫폼

※ 중·고교의 경우, 교육행정정보망(NEIS)에 학생의 커리어넷 ID와 나이스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결과표 조회 가능

www.career.go.kr

Q 커리어넷에 어떤 진로교육 콘텐츠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A 커리어넷에 어떤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커리어넷 콘텐츠 길라잡이(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을 참고할 수 있다. '커리어넷 콘텐츠 길라잡이'는 커리어넷에 탑재된 다양한 콘텐츠를 안내하기 위한 책자로, 교사용(초등/중등), 학생·학부모용(초등/중등) 총 4종이 제작되었다. 해당 자료는 커리어넷 '진로교육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커리어넷 콘텐츠 길라잡이 (초등 학생·학부모용)



커리어넷 콘텐츠 길라잡이 (초등교사용)



커리어넷 콘텐츠 길라잡이 (중등교사용)

온라인 진로상담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는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학부모·대학생 및 성인 등을 위해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진로상담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교육 콘텐츠

교육부는 전국진로교사협의회, KB 국민은행과 협업하여 중·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수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와 직업」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커리어넷 '진로교육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커리어넷 '진로동영상'에서는 진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진로체험

대면 진로체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원격' 진로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원격영상진로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분야별 직업 전문가들로부터 원격으로 '진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문형 수업'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멘토링 수업을 개설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mentoring.career.go.kr

Q 원격영상진로멘토링이란?

A

- **지원대상** : 초·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 소외지역 소재 학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희망하는 학급이나 동아리 또는 학생 개인이 원격영상진로멘토링(mentoring.career.go.kr)에서 신청
- **주요내용**: 진로 멘토링 수업, 멘토 인터뷰, 수업 및 멘토 동영상 등



원격영상진로 멘토링 진행방법



원격영상진로 멘토링 수업 영상

www.ggoomgil.go.kr

Q 진로체험망 '꿈길'이란?

A

- **이용 대상** :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밖 청소년 기관 관계자
- **주요 내용** : '꿈길'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교의 진로체험 운영 지원
- **주요 기능**
  - (정보제공) 진로체험 제공 희망기관 및 개인은 진로체험 정보(위치, 내용, 일시 등)를 '꿈길'에 등록→단위학교에 제공
  - (진로체험신청) 단위학교(교사)는 원하는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을 검색, 신청 및 매칭 확정 등 운영 관리 업무를 원클릭으로 신청
    ※ 프로그램 상세 검색에서 프로그램 유형(온/오프라인 유형)에서 '온라인(비대면)' 클릭 시 '온라인 프로그램' 검색 가능



진로체험망 '꿈길'



진로체험망 '꿈길' 비대면 프로그램 검색방법

또한,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에서는 오프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버스', '대학진로탐색캠프'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꿈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현실세계에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미래 직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

Q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란?

A

- **대상** : 중학생
- **주요내용** : 미래 직업* 가상 체험
  * (모바일용) 제로에너지 하우스 디자이너, AI 컨설턴트, 바이오장기 3D 프린팅 전문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이너, 플라잉카 교통시스템 디자이너 / (PC용) 우주자원 분석가
- **이용방법** : 커리어넷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래직업체험 실감형 콘텐츠' 앱 다운로드 후 사용
  ※ '카드보드'로도 활용 가능하며, 3D모드로 HMD 없이 모바일(태블릿)으로도 체험가능



진로교육 실감형 콘텐츠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교육부는 청소년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을 운영하고 있다.

YEEP에서는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과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온라인 사업설명회, 가상 크라우드펀딩 등 청소년들이 가상으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www.yeep.go.kr

Q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이란?

A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 **주요내용** :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및 '동아리' 활동, 가상 창업체험활동(시장분석, 온라인 사업설명회, 가상 크라우드펀딩, 가상 마켓 등) 지원



가상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 YEEP 수업

향후 추진계획

다수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직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직업을 매월 선정하여 진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는 2021년도에도 모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학교진로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체험'을 내실화하며,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확대함과 더불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 진로교육과 관련된 향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수업 블렌디드 진로교육 수업자료 개발

코로나19를 계기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블렌디드 러닝)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블렌디드 진로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급별로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 교수학습 PPT, 동영상 콘텐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커리어넷에 '블렌디드 진로교육 게시판'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탑재할 예정이다.

학생 주문형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21년도에는 주문형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을 확대하되, 특히 학생들이 희망하는 시간과 주제를 반영한 학생 주문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직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직업을 매월 선정하여 진로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학교현장에서 원격 진로교육, 블렌디드 진로교육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합쳐져, 진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꿈을 꾸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청년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청년 특성	정책환경 변화
· 현실 대처 + 미래 대비 '이행기' · 연령 구간별 정책 수요 차이 (학자금, 양질의 일자리, 주거·자산) · 다양한 분야 관심 + 직접 참여	· 비정형·비임금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 · 포스트 코로나·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청년이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 디지털 신산업(2.3만여명)
- 그린·에너지(2.5만여명)
-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
(5,800여명)
- 고졸 기초인재 사업 지원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 '20년 연 520만원 → '22년 연 700만원 · 맞춤형 인재장학금 확대 - 취·창업 지원금, 특성화 핵심인재 등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 후학습 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혁신 플랫폼 ·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 지역인재 수요-공급 매칭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일터로 이어지도록!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직업현장 실습처 발굴·확대
-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대학생·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

지역인재 양성직업교육 지원
- 직업교육 혁신지구
-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가능해지도록!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K-MOOC 강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청년정책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글 김홍오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청년이 미래고 희망이라는 인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고객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 세대라는 신조어와 함께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88만 원 세대 등 사회적 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청와대 청년비서관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되는 등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직업교육정책관을 지정하고 소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의 5대 분야로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와 함께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부가 청년정책의 주요 부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현황과 함께 교육부 소관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의 추진현황

추진 방향 : 책무성, 추진체계 구축, 참여 중심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 보장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정부 주도(For Youth)가 아닌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정책입안이 모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년을 정의하고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개선과제 발굴도 추진된다.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수립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청년기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선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2020년 3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고 34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등 7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는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을 포함한 총 4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에 청년위원이 12명 포함되었으며 대학생도 한 명 포함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총 43개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13개 과제를 반영하였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되었다. 첫 번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2020년 9월 19일 청와대에서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주제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다.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수립 배경 및 경과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기본법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주관 TF를 통해 5대 분야별 작업반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간위원 정책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 유기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작업반을 총괄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한편, 관련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진행, 부총리 주재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병행하였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정책 진단 및 추진 방향 설정

2020년 179개 과제 16.9조 원에서 2021년 270개 과제 22조 원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하였으나 개별부처 위주 추진, 청년들의 욕구 반영 미흡 등 한계도 있었다. 이에 청년 참여·주도 활성화와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 코로나19 극복과 중장기 투자 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 확보,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청년정책 균형발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5대 정책방향으로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일자리, 94개 세부과제),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주거, 24개 세부과제),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교육, 83개 세부과제),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복지·문화, 37개 세부과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참여·권리, 3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교육부 소관 주요과제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작업반 총괄과 함께 자체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5대 분야 전체에 총 36개 소관 과제를 포함하였다.

1) 일자리 분야 : 2개 과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생의 유망 창업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표준현장실습제 도입과 실습생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한다.

2) 주거 분야 : 2개 과제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향후 5년간 약 3만 명을 지원한다. 대도시 내 국·공유부지를 활용하여 연합기숙사를 확대하고, 공공기금을 활용한 사립대학 내 행복기숙사 확충도 병행한다. 기숙사비 카드납부(2020년 18.4% → 2025년 33.4%)와 현금 분할납부(2020년 30.1% → 2025년 45.1%) 비율을 2025년까지 15%p를 끌어올려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3) 교육 분야 : 28개 과제

교육 분야는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라는 정책 방향을 토대로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었다.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첫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위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한다. 근로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수혜율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을 확대(2020년 2,940명 → 2021년 5,080명)한다.

둘째, 지역 청년 인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고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교육과정·학위 공동 추진 등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되도록 하고 지역 내 취업·정주도 연계 지원된다.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첫째,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에 착수한다. 2021년부터 약 48개의 혁신공유대학을 지정·운영하여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약 1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K-MOOC에 탑재하는 등 공유·확산을 병행할 계획이다.

둘째, 고졸 기초인재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에 기반하여 2025년까지 500개의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기초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과기부 등 12개 부처와 협력하여 10개 분야 424개의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환경 분야(2025년까지 5교), 발명·특허 분야(2025년까지 17교) 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한다.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첫째, 고졸 청년의 취업과 사회안착을 지원한다. 직업 현장과 직결된 실습처 확대, 학생 및 현장교사 수당지원 강화,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등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

둘째,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을 강화한다. 진로탐색 학점제를 확대(2020년 10교 → 2021년 20교)하는 등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20년 161교 → 2025년 180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20년 35교 → 2025년 70교) 참여대학을 확대하여 군 복무 중 청년의 학업과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한다.

셋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2021년 신규로 5개 지정하여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연계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을 조성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전문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이 함께 대학교육혁신과 이를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 등을 고려하여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혁신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은 대학별 역할을 조정하고

강점을 결집하여 공유대학 모델 수립 등 대학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내 기업, 연구소 등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혁신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 기업들과 연계·지원한다.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첫째, 온라인 지식공유체계로서 K-MOOC를 강화한다. 국내·외 석학강좌, 글로벌 우수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학습자 수요 맞춤형 강좌를 안내하는 등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을 추진한다. 대학 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톱 평생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토대로 학점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학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공용 학사관리 플랫폼 운영과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대학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4) 복지·문화 분야 : 1개 과제

장애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2025년까지 약 2,700명), 대학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확대(2019년 6교 → 2021년 8교) 등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5) 참여·권리 분야 : 3개 과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 법제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대학생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방안

교육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 심리·정서 지원, 원격수업 질 개선, 방역체계 구축, 실습 안전 등 사각지대 보완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예찬'은 이렇게 강조한다. "청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움츠러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꿈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처럼 청년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2021년 청년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경상북도교육청_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랜선으로 연결된 작은 학교, 배움을 잇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제한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간 온택트(Ontact)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시공간을 초월한 원격학습 플랫폼이 마련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과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지난해,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글 양지선 기자

경상북도는 소규모학교 비율이 45.5%에 달한다. 도내 학교의 절반은 전교생이 60명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작은 학교는 교사의 개별 지도가 쉽고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래 집단이 부족해 모둠 활동이 힘들고 학습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북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내세웠다.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로 학생이 겪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원격 화상수업을 중심으로 해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모델로 평가된다.

기존 공동 교육과정은 학교 간 체험학습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동 수업 역시 학생 전체가 협력학교로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학기당 3회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또한, 학교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학급 간 자율적 운영이 어렵고, 일부 교과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네트워크 학급 단위로 운영되며, 학교 간 이동 없이 공동 수업을 추진해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 범위도 다양한 교과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타시도·도농·농산어촌 간 학급 연결, 원격수업 진행

학교 간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은 먼저 학기가 시작된 3월에 신청을 통해 타시도 간, 도농 간, 농산어촌 간 네트워크 학급을 선정했다. 네트워크 학급 교사들은 함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수업을 설계한 후 공동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마치면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해 공동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동 수업의 날은 매월 2회 이상 운영되도록 권장하되, 학급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이뤄졌다.

공동 수업에서는 위두랑, 플립그리드, 클래스팅, 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이 활용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간 등교수업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원격 화상 수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서로의 활동 모습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온라인 학습 모둠을 구성해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결과물에 대해 학생 간 댓글로 피드백도 진행됐다. 학습한 내용을 주제로 글, 그림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경북 진보초등학교와 서울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은 각자 학습 결과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다. 서로의 고장 명소를 소개하고, 친구의 고장에서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도 했다. 경북 도심의 영천초등학교와 농어촌 작은 학교인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줌을 활용해 환경 문제 해결을 주제로 토의하고, 모둠별로 비주얼 씽킹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경북 영양군의 작은 학교인 수비초, 일월초, 일월초 청기분교 학생들은 독도교육주간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년별로 독도 그림 그리기, 독도 모형 제작하기, 독도 시화 만들기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네트워크 학급들은 단순히 수업을 함께 진행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거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학생들 간 관계가 돈독해지는 효과도 있었다.

이은정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는 "학생들은 랜선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사고가 확장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으며, 교사들은 공동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수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학생은 사고 확장의 계기, 교사는 협업 통해 성장"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은 공동 수업형, 도·농 교류형, 원격 화상 수업형, 초-중 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될 상황을 예상해 다른 유형에서도 온택트형 운영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네트워크 학급 매칭 지원 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교사 간 친분으로 네트워크 학급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칭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북 수업지원포털(수업나누리)에 네트워크 학급 매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학년 등을 고려해 다양하고 원활하게 학급을 매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운영되지 못했던 오프라인 공동 수업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방역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정 장학사는 "올해 경북형 원격수업 가이드북을 보급해 온택트 수업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경북 지역 내 200개 이상 있는 복식 학급들도 학급 간 매칭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전체 사업 예산으로 6억 원을 투입하고,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학급 지원에 1억 원을 배정했다.

[표] 온택트 공동 교육과정 수업 사례

유형	타시도 간	도농 간	농산어촌 간
네트워크 학급	경북 진보초-서울 우신초	경북 영천시 영천초-청송군 도평초	경북 영양군 수비초-일월초 -일월초 청기분교
수업 내용	우리 교실에 온 서울 친구 • 나의 꿈 소개 영상 촬영하고, 친구의 꿈을 응원하는 영상 공유하기 • 친구의 고장에서 가보고 싶은 명소를 조사해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기 • 마음을 담은 시화를 만들어 서로 낭송해주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교실, 하나의 수업 • 줌을 통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의하기 • 모둠별로 토의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 후 알게 된 내용을 비주얼 씽킹으로 정리하기	셋이라서 행복한 작은 학교 이야기 • 독도교육주간, 시울림 활동과 연계 1~2학년 독도 그림 그리기, 3~4학년 독도 모형 제작하기, 5~6학년 독도 시화 만들기 • 학년별로 독도 관련 시를 지어 발표하는 온라인 시낭송회 진행

EDUCATION
NEWS

01 2021년 매치업 사업,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신규 선정

- 신산업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인증평가 실시
- 올해 K-MOOC와 연계해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이하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신산업 분야 4개를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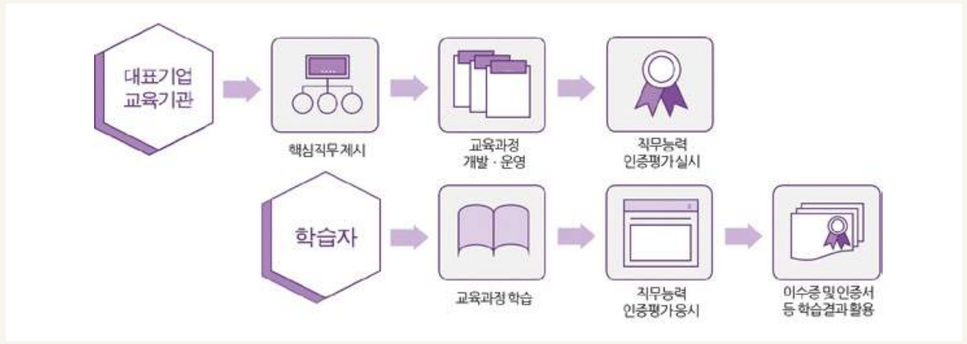
매치업 사업은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직자·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시범으로 출발, 2019년 4,878명이었던 한 해 학습자가 2020년 17,209명으로 약 3.5배 늘어나는 등 우수한 기관의 참여와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매치업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지식 공유를 위해 공동으로 해당 분야 핵심직무에 따른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운영하며, 학습자(대학생·구직자·재직자 등)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취업과 연계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매치업은 △운영분야 확대 △교육과정 내실화 △온라인 기반(플랫폼) 개선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교육 및 학습 시 신뢰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과정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와 연동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를 파악하고 학습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운영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매치업 참여기관 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여기관 간 운영성과와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3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운영 분야 선정 결과는 평가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올해 최대 3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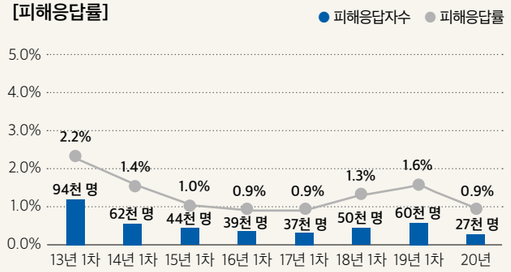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2021년은 매치업 사업이 K-MOOC와 연계하여 학습자 친화적 교육을 위해 발전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한 기업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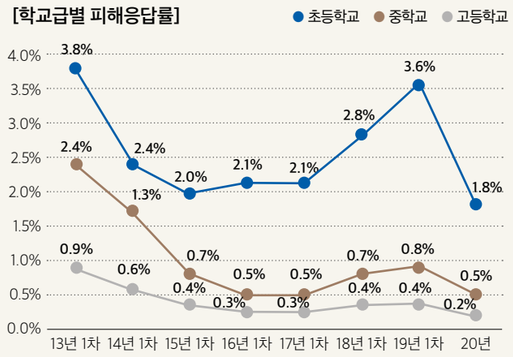
02 달라진 학교폭력 유형…사이버폭력·집단 따돌림 늘어

- 전체 피해응답률 0.9%, 전년 대비 0.7%p 감소
-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교, 사이버폭력은 중학교 비중 높아

[피해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0.9%인 가운데,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재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전년(2019년) 대비 0.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1.8%, 중 0.5%, 고 0.2%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각각 초 1.8%p, 중 0.3%p, 고 0.2%p 감소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폭력(4.9건), 집단 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3.6%), 집단 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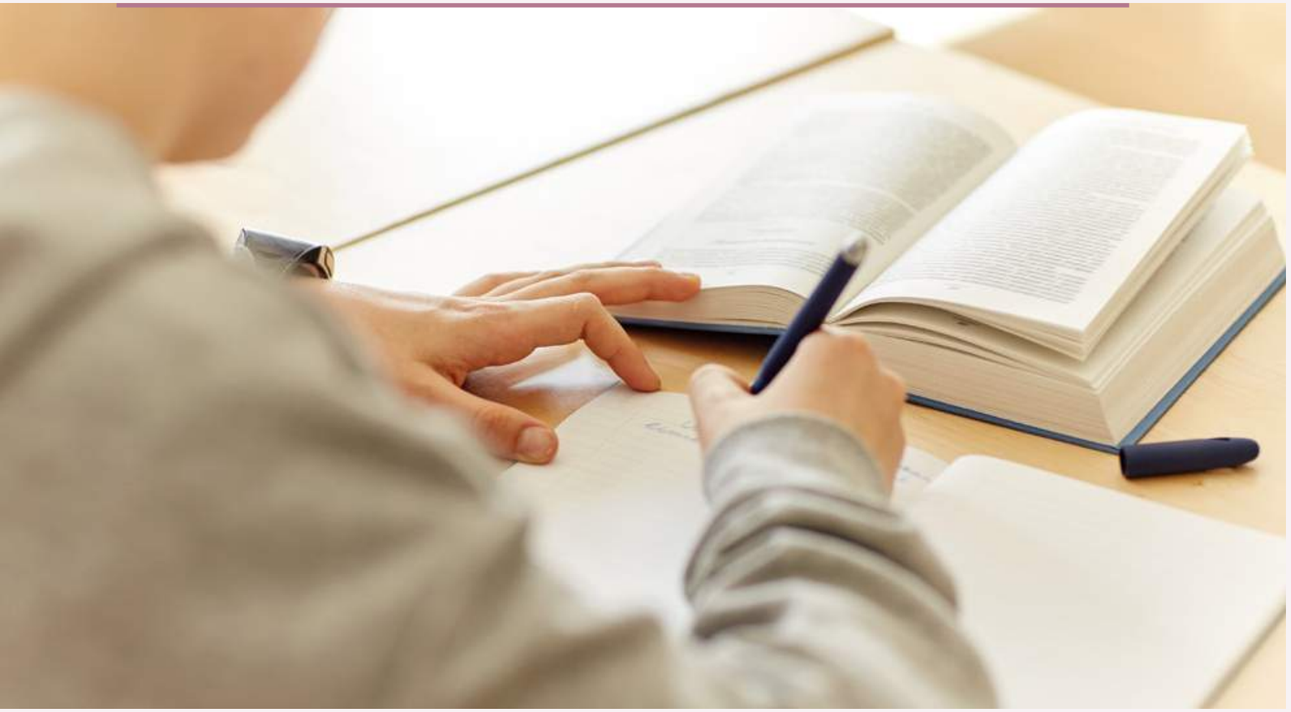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교(26.8%), 중학교(24.3%), 고등학교(2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언어폭력은 초등학교(34.7%)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18.1%)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0.3%로, 지난해 조사 대비 0.3%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 0.7%, 중 0.2%, 고 0.05%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각각 초 0.7%p, 중 0.1%p, 고 0.05%p 감소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 4.0%, 중 1.6%, 고 0.8%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각각 초 3.9%p, 중 1.1%p, 고 0.6%p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경험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컨설팅

글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



"자기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컨설팅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공부 내용 중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목별 공부법·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공부법·시간 활용 방법 등을 알고 싶어요."와 같이 학생들은 상담 선생님께 '원격수업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2020년 9월, 교육부는 수석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학습 분야의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는 온라인 학습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상담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 주관하여 전국수석교사협의회와 관심 있는 선생님이 참여하여 2021년 1월에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각 선생님은 5명의 학생을 담당하면서 학생별로는 5회의 상담을 하였다.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진단 설문을 하였는데 상담 지원자 2,339명 중 1,905명이 응답을 했다. 학생이 원하는 상담 희망 분야를 묻는 질문에 학습법·공부법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다는 응답이 1,675명으로 75.1%를 차지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고민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21세기 들어 태어난 우리 학생들은 지식의 양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지금의 아이들은 22세기에도 삶을 유지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사회에서는 스스로 학습할 역량을 갖추어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여야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먼 미래뿐 아니라 현재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려면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에 학습 목표와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자기주도학습이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왔다. 1985년에 있었던 교육개혁심의회는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상 창조'로 설정하고 인간상을 '자주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주적 인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인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유지되고 있다. 학습에서 자주적이란 말은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과정을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학습활동'을 뜻한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사람과 맥을 같이 한다. 그뿐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고입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육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OECD에서도 학습 나침반(Learning Compass)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향을 잡도록 제시했다. 나침반의 요소로는 행위주체성(Agency),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을 들었다. OECD에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행위주체성과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여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보다 다른 경로에서 지식을 외우고 스펙을 쌓아야 고입이나 대입에서 더 유리하다고 믿는 오해의 선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관점이 '학교 공부에 잘 참여했는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학습 공백을 채우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글 이은경 슬로우캠퍼스 대표(<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저자, 전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코로나19라는 힘겨운 강을 함께 건너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등교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눈에 띄게 커져 버렸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느라 갑작스럽게 시작된 가정학습으로 인해 생겨버린 학습 공백에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지쳤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불투명한 시기에 아이의 교육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게 사치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와 학생 모두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어두운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이 빛을 발하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방법은 있다. 잘하지 못해도 시도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의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인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해보았으면 한다. 원격수업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힘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학업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자기주도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이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씩 생각해보자.

가정에서 시도하는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아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법, 현재 자신의 공부 수준과 위치, 뛰어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 등에 관해 파악하고 채워가는 과정이다. 나를 알아야 달려가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파고들고 되짚어야 할 때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는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를 격려하기보다 닦달하고 혼을 내기 쉽다. 그러면 아이는 더 급하게 달린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할 틈 없이 일단 달리고 본다. 더 빨리 달리는 데 힘을 쏟는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주관 없이 마냥 휩쓸리지 않으려면 아이가 자기를 알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부를 집에서 하느냐, 교과서만으로 하느냐, 문제집으로 하느냐, 인강을 듣느냐, 학원을 다니느냐, 학습지 도움을 받느냐가 아니다. 공부의 최종 목표를 세우고 오늘 공부, 이번 주 공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할 때 '누가 주체가 되느냐'다.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느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여야 한다.

있는지,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있게 되자 무작정 지식을 암기하는 공부, 떠먹여 주는 것만 받아먹는 공부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모든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번 상담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습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상담은 학생을 5회 만나는 동안 다섯 단계로 접근하면서 이루어졌다.

1단계 문제 상황 파악하기
학생과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여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문제 상황이 파악되었으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자료를 제공하고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한 뒤 조언한다.

2단계 개선 목표 설정 및 개선 방안 협의
학생이 안고 있는 학습결손을 확인하여 개선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교사는 학생을 설득하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중기 계획까지는 세워야 한다.

3단계 실천 정도 점검 및 목표 수정
2단계에서 세운 계획표를 바탕으로 실천 정도를 점검해 본다. 실천이 안 되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룰 수 없는 목표에 좌절하기보다는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해야 자존감이 회복된다.

4단계 실천 정도 점검 및 새로운 문제 상황 여부
3단계에서 해오고 있는 실천 사항을 계속 점검하면서 새로 발견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

5단계 성과 분석 및 각오 다지기
학생이 목표를 향해 실천해 오면서 자신의 삶에서 개선된 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앞으로의 각오도 말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노력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칭찬해 준다.

상담을 마치고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진로 고민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 방법 등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는데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체계적인 학습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고민하고,
다시 계획하는 과정의 무한 반복을 통해 공부 주도권을 잡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의 4단계

자기주도학습은 아래의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어떤 과목이든 어느 시기의 공부이든 방법과 순서는 같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한다면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단계 : 마음먹기



목표 설정하기(동기부여)

아이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해보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또, 지금 하는 이 공부의 주인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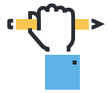
2단계 : 도전하기



공부 계획 세우기

계획은 아이가 직접 짜야 공부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공부는 어차피 아이의 일이기 때문이다. 플래너를 이용하여 오늘 공부할 과목, 분량, 순서를 정하는 일에 주도권을 준다.

3단계 : 실천하기



과목별 실전 공부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다. 모든 공부는 교과서에 나온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해서 말해 보고, 배움 공책에 정리하는 과정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단계 : 돌아보기



평가하기, 점검하기

마지막 단계인 평가하기는 단순히 풀었던 문제집을 채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점검하여 내일, 다음 주의 계획에 반영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공부가 점점 수정, 발전되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의 역할

부모는 아이가 미래와 목표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목표가 없는 아이는 잘 가고 있는지 몰라 수시로 흔들리고, 비교하다 좌절하게 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아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고 걸음을 뗄 수 있게 돕는 게 부모의 일이다.

지금 당장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단원평가 백 점 맞았으면 좋겠다', '중등 수학 선행했으면 좋겠다',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었으면 좋겠다' 대신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는지, 학업을 마칠 때 즈음이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보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으로 아이의 학창 시절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볼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쉽고 불안하겠지만 더 빠른 진도와 더 많은 양이 목표였던 부모의 계획을 한동안 내려놓아야 한다. 아이 스스로 계획 세우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고, 기껏 세워온 계획은 맘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결심이 필요하다. 아이가 세운 계획을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옆에서 주입하고 설득하다 보면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조종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잠깐일 뿐, 오래 가지 못한다.

더 치명적인 건, 그렇게 간섭해서 세운 계획이 부모와 아이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다. 아이 스스로 건강한 욕심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혼자 공부의 과정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부모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야 한다. 아이는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고민하고, 다시 계획하는 과정의 무한 반복을 통해 공부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렇게 바라던 자기주도학습이 시작된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정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과제 예시

과목	과제 예시
국어 (독서)	• 고전 독서 도전하기 • 100권 독서 도전, 읽은 책 목록 작성하기 • 독서록 매주 1편씩 쓰기 • 매일 일기 쓰기 도전 (○○줄) • 블로그에 독서 기록, 주제 글쓰기 기록하기
수학	• 매일 연산 훈련 도전 (영역 정하기) • 학교 진도 스스로 복습, 보충하기 (교과서, 문제집 활용) • 사고력, 심화 과정 문제집 도전
영어	• 영어책 매일 읽기 (시간 정하기) • 영어 단어 매일 외우기 (개수 정하기) • 영어 일기 도전 (주당 횟수 정하기) • 영어 독해 문제집 (권수 정하기) • 자막 없이 영화 감상, 영어 방송 듣기 도전 • 전화, 화상 영어 꾸준히 하기 (주당 횟수 정하기)

자기주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영역	사이트
영어	• http://www.kizclub.com • https://www.sparklebox.co.uk • http://cleverlearner.com • https://www.highlightskids.com
코딩	• 엔트리 https://playentry.org • 스크래치 https://scratch.mit.edu • 코드몽키 http://www.playcodemonkey.com
사회	• 통계청 http://kostat.go.kr •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 구글어스 https://www.google.com/earth • 기상청 https://www.weather.go.kr
시사	• 어린이 동아 http://kids.donga.com • 어린이 조선일보 http://kid.chosun.com • 어린이 경제신문 https://www.econoi.com
글쓰기	• 매생이 클럽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IJx8wQdCc2RbnBm85ubHVg
정보	•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appyschool12345678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wBfDJmnPe-dP5dsHNTm17g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교육 시설이 존재할까?

글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소장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73,865개로 같은 기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총합인 7,897개 보다 9배 이상 많다.

2020년 3월 발표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조 원(11.8%)이나 증가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규모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천억 원과 2천억 원 증가한 5조 3천억 원과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4.8%(전년 대비 1.9%p 상승)를 기록했으며, 이중 초등학생은 83.5%로 최고치를 나타냈다[1]. 같은 해(2019년) 교육부 세출 결산총액이 약 75조 원[2]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 시장은 참여율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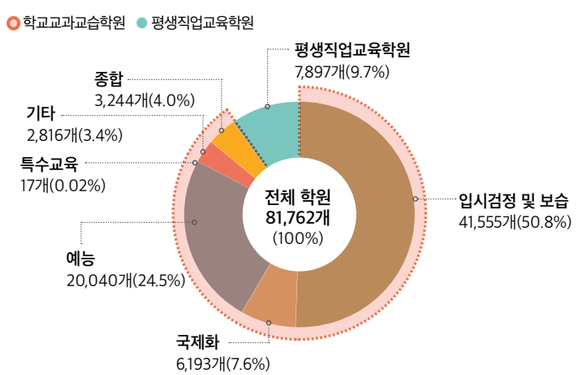
이러한 사교육 활동은 대개 그룹 및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원 수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학교 수업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두 가지로 분류된다[3].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73,865개로 같은 기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총합인 7,897개 보다 9배 이상 많다. 물론 직업·평생교육의 경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사업장이나 언론기관 부설기관 등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4,541개[4]의 평생교육 기관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밖에 기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복지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평생교육 기관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그 과반 이상(2020년 기준 56.3%)이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그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치 못한 반면, 아이들의 경우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우려한 일부 교과 학습 학원에 의해 지나친 학습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 종류 간 불균등이 심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부.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0년 3월 9일
2 대한민국정부. 2020.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교육부)」
3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교육통계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특수교육, 기타, 종합의 영역으로 분류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국제화,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종합으로 분류한다.
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평생교육통계조사」
5 박소현·이금속. 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33~51.

[그림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비율 변화(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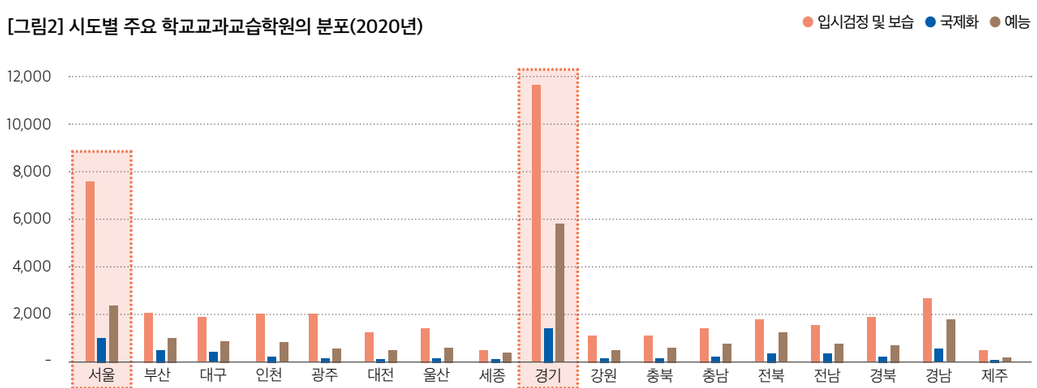


돌봄기능의 예체능교육 경기지역 집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집중화 경향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지역 편차이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능 관련 학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매우 집중된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에 비해 매우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같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수요-공급의 상관관계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학원이 많이 설립된 지역은 그만큼 수강생이나 잠재적인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5].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만 5~14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은 9.0%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이 7.62%로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9.91%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사교육비 조사에 발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이나 돌봄을 목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능 관련 학원이 경기도 지역에는 많고 서울에서는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림2] 시도별 주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포(2020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실에서 쉽게 적용하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교육에도 인공지능 윤리가 반영됩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과 원격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온라인 학습터를 소개합니다.

글 김성락 경기 한울초등학교 교사

1.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데이터 편향과 딥페이크 오용 등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필요합니다.

2. 인공지능 윤리교육 온라인 학습터 소개

인공지능 윤리를 온·오프라인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학습터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학습터는 체험과 사례 중심으로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ethicsai)



3. 수업의 구성과 실제

1차시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2차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윤리

글 쓰는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킬러 로봇 등 인공지능을 잘못 사용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윤리를 배웁니다.



3차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윤리

티처블머신(Teachable machine)으로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을 체험해보며 데이터 편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편향으로 나타나는 차별 문제를 알아보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윤리를 배웁니다.



4차시 우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예비 고1,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짧고도 긴 두 달여의 겨울방학이 한창이다. 겨울방학은 제3학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시기다. 특히나 고등학교 진급을 앞둔 중3 학생은 이 시간을 알차게 계획해서 보낸다면 새 학기 준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예습·복습과 심화학습을 하기에 겨울방학만큼 좋은 때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 방법과 생활 습관 등 예비 고1 학생이 짚어볼 팁을 알아본다.

글 최승후 대화고등학교 교사

학습방법

국어 국어 역량 함양에는 독서가 제격이다. 독서 습관이 몸에 배면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독해능력 향상을 도와 다른 과목의 문제와 지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먼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책 서너 권을 미리 선정하자. 대학교 입학처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별로 추천 도서가 소개돼 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주제와 느낀 점을 '한 문장 쓰기'로 시작해, 내용을 '두 문장, 세 문장 쓰기'로 확장해 나가며 글쓰기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책 속 좋은 문장을 그대로 필사해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책이 부담된다면 인터넷에서 매일 사설, 칼럼을 하나씩 골라 '주장-근거-사례' 형식의 세 문장 쓰기로 요약해 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수시모집 논술, 면접에 큰 도움이 된다. 책을 통해 타자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표현해보는 연습은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의 튼실한 기초가 된다.

참고로, 고1 때 배우는 '국어' 과목은 수능 직접 출제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고2 이후 배우는 '독서, 문학'은 수능 출제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과목이다.

수학 겨울방학 동안 수학 공부는 최우선 순위다. 수학 교과는 학년·과목별 위계가 분명해서 그 어느 과목보다 기초가 중요하다.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내용 중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자. 오답노트를 만들며 복습하고 심화학습 하는 것이 무리한 선행보다 훨씬 효과 있는 공부법이다.

중학교 내용 복습이 끝났다면, 고1 '수학' 과목 단원별 내용과 개념을 익힌 후, 단원별로 대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예습이 됐다면 그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 심화 문제는 많은 문항을 풀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이해가 안 되면 수능 4점짜리 문항을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여유가 있는 겨울방학이 수학 개념 공부하기 최적의 기회다.

참고로, 고1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은 수능 직접 출제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고2 이후 배우는 '수학 Ⅰ, 수학 Ⅱ'는 수능 출제 공통과목이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는 선택과목이다. 인문계를 지원한다면 '확률과 통계(경상계열 지원자는 '미적분'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연계는 '미적분, 기하'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기하'는 진로선택과목이다.

영어 영어는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일정량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먼저,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어휘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독해, 즉 읽기에 도전하면 된다. 영어 기초가 부족하다면 본인의 영어 실력보다 조금 쉬운 교재를 선택하자.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짧은 글을 고르고, 하루에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정하자. 짧은 지문 5개 정도가 적당하다. 일정표나 달력에 수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어휘와 독해 학습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는 기본적인 어법과 구문에 도전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영어 공부는 '매일 꾸준히', 잊지 말자.

생활습관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방학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다. 이런 때일수록 욕심을 부려 촘촘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시간표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세울 것을 권하고 싶다. 방학 동안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새 학기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먼저 내 방과 책상을 스스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공부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등 자기주도적 계획을 세워보자. 공부는 그다음이다. 코로나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 학기를 앞두고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거기에 부족했던 학습을 보충한다면 금상첨화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원격학습이 길어지면서 학습 공백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짚어보자. 특히, 게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규칙적인 방학 생활의 핵심이다.

고등학교 입학 전 자신의 진로·진학에 대해서 스스로 탐색해 보는 시간도 꼭 확보하자. '어디가(www.adiga.kr)', '커리어넷(www.career.go.kr)', '워크넷(www.work.go.kr)'이 유용한 사이트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인 '아로리(snuarori.snu.ac.kr)'에 있는 전공별 소개 동영상도 추천하고 싶다. 입학 후 첫 학력평가가 3월 25일 실시되므로 이 일정에 맞춰 학습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표] 2021년 전국 학력평가 일정

구분	고3	고1,2	주관
3월 학력평가	3월 25일(목)	3월 25일(목)	서울시교육청
4월 학력평가	4월 14일(수)		경기도교육청
6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6월 3일(목)	6월 3일(목)	고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1,2: 부산시교육청
7월 학력평가	7월 7일(수)		인천시교육청
9월 학력평가 (고3 모의평가)	9월 1일(수)	9월 1일(수)	고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1,2: 인천시교육청
10월 학력평가	10월 12일(화)		서울시교육청
11월 학력평가		11월 24일(수)	경기도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8일(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횟수	총 6회	6월 3일(목) 서울 고1,2 미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전염병은 인류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나

글 강응천 도서출판 문사철 대표(역사저술가)

흑사병은 피렌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변화하는 걸 촉진하기도 했다.

COVID-19

역사 속에서 코로나19와 비견할 만한 전염병은 14세기 흑사병과 20세기 초 스페인독감이 있었다. 1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키고도 물러갈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인류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600여 년 전 흑사병에 휩쓸렸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꽃의 도시 피렌체는 13세기 내내 귀족과 시민의 치열한 권력투쟁을 겪었다. 여기서 시민 세력이 승리하면서 공화정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피렌체의 주역으로 올라선 상공인은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꾸려 경제 활동을 했다. 13세기 말 피렌체의 주요 공직은 약 3,000개, 21개 주요 길드의 성인 남성 조합원은 약 8,000명이었다. 이들 길드 조합원에게는 공직 참여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상공업 엘리트 가문이 성장해 피렌체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주변 도시에서 '피렌체 드림'을 이루기 위한 이주가 이어지면서 인구도 급증했다. 그러면서 하층민 사이에 소수 엘리트 가문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으나, 그 목소리는 피렌체의 번영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흑사병은 바로 그런 시기에 피렌체로 스며들었다.

피렌체에 첫 흑사병 환자가 나온 것은 1348년 봄이었다. 시 당국은 즉각 방역 조치에 나섰다. 공기 오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염원 제거에 나섰다. 전문가들로 공중보건 문제를 담당할 8인 위원회를 꾸려 전권을 부여했다. 도시 출입은 통제되고 감염자는 격리되었다. 흑사병의 첫 번째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8월 말은 약 12만 명을 헤아리던 피렌체 인구의 60%가 희생된 뒤였다.

인구가 급감하자 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인구 유출을 막고 타지역에서 수공업자를 유치하는 데 힘을 썼다. 시를 이탈하는 자에게 500리라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민권을 박탈하자 많은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렌체에 남았다. 피렌체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해 들어오는 외부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 가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곤 했다. 10년 주기로 흑사병의 유행이 반복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자 피렌체의 사회 구조는 또다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은 모직물 가공업이었다. 모직물 업자들의 길드는 대단한 세력을 누렸다. 당연히 모직물 노동자의 수도 늘어났다. 그들을 일컫는 이탈리아어가 치옴피였다. 치옴피는 14세기 피렌체 노동력의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흑사병이 피렌체를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간 1378년, 치옴피는 엘리트 세력의 정치·경제적 독점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유럽 역사에서 유명한 치옴피의 난이다. 그들은 7월 말에 시 정부를 접수하고 일련의 개혁을 시도했다. 하층민을 대변하는 길드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주요 관리를 선출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달 2,000벌의 최소 생산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며, 세금 제도도 개혁했다.

그러나 엘리트 세력의 반격으로 치옴피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다. 피렌체는 이전의 과두정 체제로 복귀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성장한 일반 시민의 권리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전보다 권력의 배분이 더 촉진되고 중요 관직에 진출하는 하층민이 늘어났다. 흑사병은 피렌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이처럼 피렌체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변화하는 걸 촉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피렌체 사회의 변화는 흑사병이 아니었더라도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흑사병이 그 변화를 앞당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흑사병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재앙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재앙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거라는 사실이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들 한다. 피렌체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가 전염병으로 인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게 무엇일까?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로 후퇴하는 것일까? 눈을 크게 뜨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살피면, 그중에 답이 있을 것이다.

FOCUS 01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김영근 명예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지도 멘토링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지도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3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했다. 이후 멘토링 희망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학생 지도에 일괄적인 강사 배정 및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적합한 강사를 매칭하여 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

교원자격증, 한국어 교원자격증,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유창한 자를 우대하여 초·중학생 대상 기초 교과 학습지도 경험이 있거나, 유·초·중학생 대상 상담 교육 지도 경험이 있는 강사 15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멘토 역량 강화 연수 후 해당 학교에 파견했다.

연수 강사 삼덕초등학교 이혜진 수석교사는 초기 문해력 지도 및 향상 방안(읽기 쓰기 부진아동지도)에 대해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Why?, How?, What?, 읽기 능력 신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 눈높이에서 머무르기, 즉 '아눈머'부터 시작하는 다품교육을 안내했다.

대구 북동초 이태윤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하기'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기초 교과 지도방법으로 학생의 도움을 조력해 주기 위한 교사의 활동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했다.

멘토링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주 1회 2시간씩 총 15회 30차시로 운영된다. 멘토링 학생은 초 20명, 중학 1명으로 국내 학생 8명, 중도입국 5명, 외국인 학생 8명이다. 이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심리상담과 기초학력(국어, 수학, 연산, 글자지도 등), 한국어 교육, 중국어로 국·수 지도와 정서적인 돌봄 지원, 전공과 상담 혹은 교육,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지도해줄 강사 매칭을 원했다.

서대구초등학교(교장 함인수) 박병대 담당부장은 "연말이 된 시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강사 지원을 해 주어서 감사하다. 지도 기간이 짧은 것이 아쉽다. 2021년에도 계속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막심(여·4학년) 학생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하여 쉽게 가르쳐주어 조금은 알게 되어 기쁘다. 계속 지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FOCUS 02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메이커교육

백희 명예기자

지난 1월 19일 서울 강남구에 로봇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인적, 물적 자원활동을 극대화하는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 미래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청소년들이 3D프린터 등으로 직접 콘텐츠를 구상, 제작하는 공유형 창작공간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물건을 만들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방식인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남구는 교내 9개 동아리실을 리모델링해 660m² 규모의 '메이커존'을 만들어 레고, 휴머노이드, 산업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관한 단국소프트웨어고, 대청중, 청담중, 풍문고, 학동초등 총 8곳에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로봇, 3D프린터 등의 교육 기자재를 지역 17개 중학교에 지원하는 등 메이커교육 확산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로봇고등학교는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로서 지역사회의 초·중·고 학생과 학교 전공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메이커교육을 지원하고 이번에 구축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로봇메이커랩'으로 이름 지어 창작로봇 등의 제작을 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근 세곡지역에 조성될 로봇거점지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FOCUS 03

코로나19로 바뀐 졸업식 풍경

안지민 명예기자



평소 같았으면 학교 강당에 학부모님을 초대하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졸업식을 했겠지만, 2020학년도는 각 학급에서 졸업식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예정됐던 체육대회,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아이들의 아쉬움이 컸기에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추억할 수 있는 졸업식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미리 반 학생들에게 1분 내외로 선생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2020년을 되돌아보며 드는 생각 등에 대한 영상편지를 받았다. 여기에 담임선생님 인터뷰 영상도 넣고,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넣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졸업식 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업선물로는 장미꽃 한 송이와 독서대를 정하였다. 독서대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가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현수막과 풍선 등을 활용하여 반에 포토존을 만들기로 하였다. 졸업식 전날, 학생들과 함께 포토존을 꾸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졸업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선생님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바로 나오는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어 추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FOCUS 04

기초학력, 온라인 교육으로 잡는다

김진원 명예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학력격차가 극대화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0 겨울방학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하여 실시간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공부방을 통해 겨울방학 동안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관리·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중등 총 304명의 교원이 1,001명의 학생들을 1대 1 멘토링 또는 사제동행의 방식으로 1~2월 겨울방학 5주를 활용하여 온라인 겨울학교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기초국어 또는 수학을 중심으로 1:1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과 배이스캠프, 줌 등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별로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 및 쌍방향 수업도구를 통한 피드백 등을 실시했다. 처음 시도하는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지만 학생의 배움격차를 위하여 방학중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